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또다시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은 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었다.

협의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국가비상방역부문 일군들과 보건성 책임일군이 방청하였다.

정치국은 5월 15일 현재 전염병전과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국가방역체계가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한 후 전반적인 방역상태를 재점검하고 의약품공급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문제를 집중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적인 의약품공급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염병전과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예비의약품들을 긴급해제하여 시급히 보급할데 대한 비상지시까지 하달하고 모든 약국들이 24시간 운영체제로 넘어갈데 대하여 지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되지 않고 모든 의약품들이 약국들에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고있는 현 상태를 분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달지 못하고있는것은 그 직접적집행자들인 내각과 보건부문 일군들이 현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지 못하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신을 말로만 외우면서 말벗고 나서지 않고있는데 기인된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조직집행력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정책집행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담보하여야 할 사업, 검찰부문이 의약품보장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신속정확하게 시행되도록 법적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의약품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하여 지적하시면서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역사업전반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고 그를 시급히 퇴치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군의

부문의 강력한 령망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키는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지도일군들이 최대의 분발력과 투지, 비상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방역전쟁에서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첨예한 방역전쟁에서 고도의 긴장성과 경각성을 견지하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세밀히 작전, 지휘하여 사소한 빈틈과 허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일군들이 실속있는 사업, 실속있는 결과로써 방역투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현 방역형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당면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시었다.

협의회에서는 또한 비상방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통제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 약국들에서 의약품취급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방역사업에 대한 법적통제의 도수를 한층 높일데 대한 문제,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는 길로 평양시

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의약품공급상태를 직접 료해하시었다.

조용원, 김덕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최경철 보건성, 당중앙위원회 해당부서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도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현장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약국들에 들리시어 의약품공급 및 판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었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제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약품공급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약국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꾸러져있지 못하고 진렬장외에 약품보관장소도 따로없는 낙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판매원들이 위생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하에 봉사를 하고있는 실태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위생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방역대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자신이 되어 시행하는 인민적인 방역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해나가달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가 5월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현 방역위기형세를 분석하고 당면한 방역정책실시와 최대비상방역상황에서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방향에 대한 연구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5월 17일 현재 상반기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실태보고자료를 료해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에 제기할 문건들과 조직문제안을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활동에서 나타난 우결점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간부들, 국가기관 일군들이 결결한 의지와 자신성,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간직하고 역할에 높이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방침관철에서 뚜렷한 개진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준엄한 방위시련극복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관의 책임간부들이 비상방역상황에서 경험이 미숙하여 앞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

는 현실을 분석하고 그들의 주도적역할과 창발성,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들을 연구회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간부들, 국가기관 일군들이 무능과 보신으로 자리지킴을 할수 없게 사업과 활동, 역할에 대한 장악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전당과 국가기관안에 강한 사업기강을 세우기 위한 대책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안의 규률조사, 검사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당조직사상생활을 바짝 조이며 조직적통제와 검사사업을 포함한 장악통제력을 제고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의 일군들이 맡은 소임을 다하게 하며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건설로선을 힘있게 견인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 기구적대책들을 더욱 완벽할데 대하여 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각 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활동에서 나타나고있는 제한성과 결함들을 분석하시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밝히시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5월 17일 현재 전염병전과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서를 료해하고 현재 실시하고있는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률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호전주의가 지속되고 방역형세가 변하는데 따라 국가방역정책을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방역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의약품공급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사업전개정형을 집중 료해하고 의약품보급중심과 전국적인 지구별 치료중심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대책안들을 연구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현시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맞다는 방역시련의 초기부터 발로된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의 미숙성, 국가지도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헤이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로출시키고 시간이 생면인 방역대전초기의 복잡성과 간고성만을 더욱 중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역전쟁초기에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을 발전적견지에서 심도있게 비판분석하고 신속히 대책하며 당중앙의 해당 방침과 정책을 각 부문에 침투, 무장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더욱 완벽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제와 복종체제를 보장하며 모든 단위, 모든 일군들이 정세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극복해나가는데서 인식부족과

준비부족, 자의적해석과 자의적행동에 대한 방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열도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비상방역형세에서 당면하게는 악성전염병전과방지와 치료전투에 집중하는것과 동시에 전방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사업을 다방면적으로 적극화하며 최근에 발로된 결함과 부족점, 취약한 고리를 퇴치하고 보건방역체제와 체계를 보장하여 우리가 현시기 직면한 방역위기가 국가방역능력건설의 가일층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짜고들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회적동향과 군중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제때에 료해대책하며 당과 국가가 취한 비상조치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잘 해설선전하고 준엄한 국가비상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여주며 모두가 자각적의무를 성실히 다하도록 교양인도하고 방역전쟁을 철저히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전면합세로 극복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맞다른 위기는 우리 국가의 모든 사업체계의 우단점을 판별해볼수 있는 시험대를 제공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비상시국의 모든 현상들을 정확히 투시해보고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대책하며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사회의 각 부문의 사고와 행동을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통일시키고 모든 국가활동에서 당중앙과의 일치보조를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전당의 당세포들에 당중앙의 세포중시사상, 당원역할중시사상을 체침투시켜 당원들의 핵심적역할,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특히 간부들이 투쟁전구와 투쟁전선의 전위에서 당면대중, 광범한 군중을 이끌고 척후병으로 용감히 나서서 싸우며 방탄벽으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비상시국에서 전당을 다시 한번 활화처럼 불리일으켜 우리 당 특유의 세련된 령도력을 력사와 시대앞에 검증받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또다시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할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본사기자



#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에 안겨사는 인민의 행운

사랑과 격정으로 흘러가는 이 나라의 낮과 밤이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밤, 별빛흐르는 창문가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외워본다.  
**행운!**

지금은 건국 이래 대통령이 되고 말할 수 있는 준엄한 시기, 악성 전염병이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시각 어이하여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은 누구나 행운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인가. 어이하여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눈앞에 닥쳐온 위기보다 먼저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꼭 잡고 한시도 놓지 못하는 것인가. 그 어디서나 물어보라, 그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그러면 온 나라 인민들이 심장으로 리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원수님 품에 안겨사는 우리들이야말로 행운아들입니다!》**

## 원수님은 언제나 인민사수의 최전방에 계신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에 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대비상방역체제의 가동실태를 점검하고 정치실무적대책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5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에 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의회를 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회의를 진행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에 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의회를 지도하시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가 5월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에 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의회를 지도하시었다.

방역체제로 이행한다는 보도가 전해진 때로부터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집집에 들어나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행복에 겨워 눈물짓는 인민들의 그 모습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인민을 사랑하는 원수님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안아본다.  
 자신의 한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생명안전을 위해 자신을 깎고 버려주시는 원수님! 그의 사랑과 헌신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큰 자애의 세계이다.  
 지금도 귀전을 세차게 울려주는 그의 절절한 그 말씀.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 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안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  
 세계의 량심아. 물어보라, 부패투러온 인류력사에 어느 나라 정도자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렇게 마음쓴적 있었는가. 과연 세계를 무성케 휩쓰는 오늘의 전염병위기상황에서 어느 나라 정도자가 전염병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밤길을 걸은 레가 있었는가.  
 아마 금세기에 도 후세기에 없었겠다.  
 오직 조국과 인민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정도자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길,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정녕 다는 알지 못했다. 얼마나 행복한 날과 날들이 이 땅에 흘러왔는지, 그 소중한 행복을 위해 경애하는 그이께서 얼마나 값고 많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인류력사는 수수천년 얼마나 값고 많은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

나에게는 장군님께서 말하고 가진 우리 인민의 장군님의 말씀으로 안겨온다고,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인민이 불행과 재난을 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것을 가셔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의 아버지.  
 바로 이런 인민관을 지니시고 이인위천, 위민헌신을 제일가는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치의 높은 연단에서도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서 높이 솟아올라온 마음속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이라고 그리고 절절히 외우신 것 아니겠는가.

사랑의 최고표현은 헌신이다. 하나의 행복만을 찾아가는 길도 아니고 그 어떤 명을 바라고 가고 또 가시는 길도 아니다. 오로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귀중한 조국과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걸고 걸으시는 그의 희생적인 헌신의 상징이다.  
 그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 있기에 남들이 주저하는 위험천만한 길도 주저없이 걸으시는 것인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강렬한 책임감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생사를 판가리하는 오늘의 방역대전의 진두에 서시어 자신의 한몸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 것이다.

어려울수록 더더욱 가깝게 다가드는 아버지의 발걸음소리들. 힘든 때일수록 제일 가까운 곳에서 미쳐오는 그의 따뜻한 손길들.  
 인민들결정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소리를 들으며 그의 따뜻한 손길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사람들은 두해친의 잊지 못할 나날들을 눈앞에 떠올린다.  
 태풍피해가 채 가셔지지 않은 험한 진창길, 립시복구된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리시어 복구건설장들을 찾으시고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인민군군인들을 피해복구의 맨 앞장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귀전을 울린다. 우리모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 시련을 같이하면서 이면 태풍피해복구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고 그리고 절절히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그의 경건은 그날의 음성이다.  
 \* \*  
 좋아하고 기뻐하는 인민들보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오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은 가장 어려운 때이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길이길이 전하며 심장의 노래를 부르고부른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경애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으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인민의 단결된 힘을 굳게 믿으시는 그의 크나큰 믿음으로 이 땅에 선 별씨부터 승리의 개가 높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렬히 확인하시었다.  
 우리에게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인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아버지이시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사회주의 덕과 정으로 방역대전은 승리적으로 결속될 것이며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 자애로운 그 품 떠나 못살아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 상비약품을 받아안는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만 같아 누워있던 집안식구들이 기적처럼 일어나 원수님만세를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가정에서 준비하여 보내주시는 약품이라는것을 우린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약품들에 얼마나 세심한 정성이 깃들었는지... 천어머니들이 이렇게 다짐할 수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준비해둔 약을 인민들에게 보내준 정도자는 아마 전세에도 없었고 후세에도 없을것입니다. 정말이지 열백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의약품들을 받아안고 감격에 목매어 격정을 터치고터지는 황해남도인민들의 목소리이다.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고,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낮이나 밤이나 쉬임 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께 인민들의 다함없는 지성을 바치고고쳐도 그 정성 모자라진단 오혀려 그이께서는 인민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평범한 인민들을 격정하시며 가정에서 준비한 의약품까지 보내주시니 진정 어느 나라 력사에 인민이 정도자로부터 이런 사랑, 이런 정을 받은적 있었는가.  
 몇사람만이 아닌 온 황해남도의 인민들이 눈물을 뜨겁게 적시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랴.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불행을 당할새라 친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운명의 손길에 케부에 따듯이 외양지 않았는가. 인생의 먼길을 홀로는 못가며 따르는 머나먼 인생길에서 잡고 따르는 손길을 바라는 법이다. 더 우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구원

의 손길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더 배가된다.  
 황해남도의 인민들뿐이 아니다. 온 나라의 그 어디에나 정도자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가닿고 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령령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명령이 하달되고 수천명의 화선용사들이 평양시안의 수백개의 약국들에 긴급전개되어 의약품공급사업에 전력전입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총대로서 지키는 화선병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그들의 방역대전의 앞장에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있다. 이들의 끝없는 모습은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인민과 운대가 하나가 되어 나라에 닥쳐온 엄혹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미풍속에 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고있다.  
 수도의 곳곳을 울리며 들려오는 화선병사들의 발자욱소리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을 울려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에서 인민들은 누구나 듣고있다. 느끼고있다.

프락에 아이들 뛰놀고 내 집에 웃음꽃 넘칠 때면 행복의 이요람 지켜준 그 사랑어려와 목메네 모진 풍파를 다 막아주며 보살펴주시는 원수님 뜨거운 정이 뜨거운 정이 사무쳐와 눈곱젖네 내 어이 꿈엔들 잊으랴 피로로 흘러든 그 정을 ...  
 이런 사랑, 이런 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은 방역전쟁에서도 승리한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운명의 태양이시고 미래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온 나라 인민들이 안겨사는 사랑의 품, 잠시도 떠나서는 못사는 인정의 바다이다.  
 그 품에선 멀고가까운 사람이 따로없다. 그의 시선은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닿아있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은 너도나도 그의 품에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그 품에 운명을 통째로 맡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오늘의 방역대전에서도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를 정도자로 모신 행운을 지닌 공화국인민들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드물지 않는 신념과 의지, 단결로써 자신들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 미래를 끝까지 지켜낼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치는 공화국

건국 이래 류레없는 대동단을 맞은 공화국에서 사람들의 생사를 건 방역전쟁의 분분초초가 초긴장속에 흐르고있다. 하지만 방역위기의 도전과 난관이 아무리 엄혹하다 하여도 이 나라 인민의 얼굴에서 비판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필멸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곁싸이는 격난을 과감히 헤치며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과연 무슨 힘이 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용기백배하여 방역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는것인가.

그 힘은 역대의 자들이나 재부가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하나를 이룬 혼연일체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70여년의 력사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증유의 도전과 시련을 헤치며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력사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행로에는 식민지통치자 남겨놓은 빈터에서 창조와 건설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리던 새 조국건설의 나날도 있었고 원자탄을 들고 덤벼드는 침략자들을 보병총으로 물리쳐야 했던 가혹치열한 전파의 날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벼룩 한장 성한것이 없는 제미우에서 복구건설을 하고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야 했던 때도 있었고 사면팔방에서 때를 지어 앉살 팡풍을 몰아오는 제국주의자들들과 맞서 붉은기를 지켜야 했던 고난의 년대도 있었다.

공화국은 이러한 엄혹한 격난들을 수령의 두리에 천만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거대한 힘으로 격파하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을 이룩해왔다.

령도자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이 혼연일체는 이 세상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최강의 무기로서 이는 공화국의 제일국력으로, 국력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으로 승리적전진을 이룩해온 공화국의 자랑찬 발전로정을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혼연일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온갖 적대세력의 침략과 도전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와 주권을 수호하는데서나 국가건설을 위한 창조와 건설사업에서나 언제나 백승의 기치로 되어서 공화국의 혼연일체는 오늘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데서도 그 위력으로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는 경애하는 령도자께서는 인민의 영성을 우리 령도자로서 이 나라 인민이 더욱 심장으로 절감한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위대한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으며 이

위대한 힘이 있어 조선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통쾌한 련전승만을 안아온다는 것이다.

남들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흉내낼수도 재현할수도 없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땅위에 일어나 수없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진정 수령을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게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력사의 온갖 팡풍을 맞받아 헤쳐온 공화국은 앞으로도 불가항력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나갈것이다.

김승민

# 남조선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갈등과 대립

지구상에서 사회적갈등과 대립이 가장 극심한 곳이 남조선이다.

여야정치세력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해져 《국회》에서 고성과 주먹질이 오가는가 하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 로년세대사이로 리해관계의 불일치가 심각해지면서 한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손자사이로 서로 다른 리념과 주의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있다.

로년세대는 로인빈곤률과 로인자살률이 세계최고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는데로부터 로인기초연금, 로인공공의료확대를 비롯한 복지확대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제기하고있는 반면에 청년세대는 50%가 제 집이 없어 폭방살이를 하고 20%가 실업자일 정도로 집마련과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나니 부동산안정과 일자리문제해결, 최저임금인상을 전면으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하면 중년세대는 집, 일자리, 복지문제로 생활을 절고있는 청년세대나 로인세대와 달리 경제문제를 더 중시하고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인상, 《탈원전정책》, 환경보호문제 등 주요경제문제들에 대해서도 청년층과 중년층, 로년층은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면서 우상간선하고있다.

이러한 청년세대는 사회와 직장에서의 일정한 경제적위위를 가지고있는 중년세대때문에 청년일자리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고 보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년세대를 중요

의 대상으로 여기고있다.

가혹한 생존경쟁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차별, 취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 각종 차별속에서 성장한데로부터 소통과 협력, 남에 대한 배려보다 극단한 개인주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남조선의 20, 30대 청년층에서도 서로 반목질하고 인신모욕까지 해가며 혐오하는 풍조가 만연하고있다.

일명 《젠더갈등》으로 불리우는 남녀갈등은 지난 시기에는 인터넷에서 흥미본위로 서로를 비방하는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 체육과 문화계 지어 정계 등 사회 각계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남녀청년들이 《한남총》(남자들은 벌레와 같다는 의미)에 《김치녀》(남자에게 기생하는 여자), 《페미니스트》(여성우월주의자), 《마초》(남성우월주의자) 등으로 서로 힐뜩고 비방증상하다 못해 인터넷에서 집단적으로 인신공격에 나서고 심지어 살인, 성폭력 등 각종 범죄까지 저지르고있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각종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며 사회적갈등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있는것이다.

이렇듯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갈등과 대립은 극단한 개인주의와 사회적불평등이 만연하는 남조선사회가 빚어낸 악재이며 치유불능의 고질병이다.

본사기자



# 역과정이 넘쳐흐르는 사회주의락원

뜻밖의 시련과 난관이 이 나라 인민의 삶에 흘러들었지만 그속에서도 더욱 뜨거워지는것이 있다.

바로 사회에 흐르는 덕과 정이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였던 한 제비동리는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이웃집에 순가락이 몇개이고 밤사발이 몇개인지를 알만큼 서로 관심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화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쌀독에서 인심이 하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어 물질경제적으로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조국인민들이 시련속에서도 그렇듯 뜨거운 덕과 정을 지니고 살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동료들에게 놀라움을 표시한바 있다.

그도 그럴것이 문닫고 들어가면 열집에서 소 잡아도 무슨 일인지조차 알수 없고 또 알고있고 하지 않는 세상지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마땅히 생겨나는 감정일것이다.

시련속에서 더욱 뜨겁게 오가는 덕과 정.

실지에 있어서 이 나라는 덕과 정으로 부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왔으며 그것으로 오늘과 같이 어렵고 강고한 방역대전도 이겨내고있다.

얼마전 평양시 평천구역의 어느 한 약국앞에서 있는 일이다.

약국앞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구역을 사이에 놓고 중년의 한 남성과 두명의 군인들이 《우신각심》하고있었다. 다음아닌 그 군인들은 평양시안의 약품봉사과 의약품수송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었고 중년의 남성은 그 부군에 살고있는 주민이었으며 그의 가족이 성의껏 마련한 식료품이었다.

중년의 남성은 그 식료품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젊은 군인들은 지금처럼 인민들이 어려울 때 자기들은 인민들에게서 한방울의 물이나 한알의 낱알도 받을수 없다고 두손을 내흔드는것이였다.

본사기자 리연선

끝끝내 구력은 남성의 손에 도로 넘어갔지만 인민은 군대를 위하고 군대는 인민을 위하는 뜨거운 사랑과 정만은 서로 마주보는 눈빛을 타고 끝없이 오고갔다.

이런 광경은 최근 평양시의 어느 약국앞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풍경이다.

어찌 약국앞에서뿐이겠는가.

일터들에 가면 종업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아글타글 예쓰는 일군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마을에 가면 많지 않은 식당과 부식집, 의약품들을 사수해 이 이웃집에 넣어주며 고부하고 격려해주는 다정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또 병원에 가면 창문쪽침대를 다른 환자에게 양보하고 자기가 쓰던 약도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양겨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도 들을수 있고 이미 년로하여 집에 들어온 몸이지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편히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다시 병원에 나와 제일 힘든 방역전선인 구급과에서 환자들 치료해주고있는 로의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뛰어나서 담당의사가 쓰러지자 자기가 그 의사의 담당세대들까지 맡아 며칠밤을 교박 새우며 그 많은 세대들을 다 돌보고 치료해준 의료일군에 대한 이야기도 감동깊게 들을수 있다.

지금 이 시각도 덕과 정으로 가득찬 이야기는 끊임없이 태어나 이 땅의 공기를 더욱 포근하고 따스하게 하여주고있다.

비록 그 이야기의 갈래는 서로 다르지만 오늘 그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와 같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시고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락원, 그 품이 있기에 사람들사이로 따뜻한 덕과정이 오가고 그 품에서만 자기들의 행복도 미래도 꽃피울수 있다는 확신이다.

살아온 그가 한 이 말과 너무도 대조되는 말이 있다.

《나의 조국은 나의 희망, 나의 꿈, 나의 행복을 꽃피워주고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고마운 품입니다.》

이것은 공화국의 한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심정으로 리친 말이다.

그의 이름은 최복순, 고려식료기공장에서 일하면서 로동자발명가로 소문난 그녀는 지난 시기 여러 과학기술축전과 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런 그가 얼마전 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로동자박사!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일하는 일터를 찾은 우리는 그에게 평범한 로동자로서 박사의 학위를 받은 심정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다섯남매의 넷째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그 후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한점 그늘없이 배우며 자라왔다.

# 박사학위를 받은 녀성로동자

하기엔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동현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배워 나라의 언덕에 보답하기 위해 애썼다. 로동의 여가시간이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시간을 쪼개 가며 공부하였다.

10여년전 그가 처음으로 새 제품을 개발하였을 때였다. 그것이 발명으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라에서 발명품들을 인정해주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뜨거운것을 삼켰다. 자기에게 새 착상을 안겨준것도, 지칠새라 힘을 주고 이끌어준 사람들도 다름아닌 그들이었던것이다.

그후 그는 불같은 정열을 안고 노력하여 여러건의 발명품들을 받았으며 소문들을 들을 출판물에도 게재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대학공부를 하면서 석사의 학위를 수여받은 그는 더 많은 지식으로 나라의 언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어려운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 박사의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박사예달을 받아안은 날 같같은 로동자가 박사가 되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그에게 공장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언덕에 보답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사라고, 영웅으로 내세워주게 되고마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라고...

축하의 꽃다발속에 묻혀 그는 울었다. 부모도 미처 알지 못한 재능의 싹을 찾아 천만고마운 품을 들어 올려준 조마은 조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예에 대하여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세상을 둘러보면 인간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사회

에서 인생의 모든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이 있었다. 허나 그것은 어지없이 빛났고 산산이 깨져져나가는 허무한 꿈, 실현 불가능한 희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사람의 넓은 품에 안아 세 사람의 마음속희망까지 헤아려 꽃피워주는 세상 이 바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이다.

아마 배서 커울맨이 최복순 녀성과 같은 로동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게 해줄것을 믿고있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유일한 곳은 조선이라고 말할것일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세상에 들도 없는 고마운 그 품을 떠나 순감도 못산다고 한목소리로 격정을 터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흥수환

민족의 넋을 안고사는 해외동포들

《우리》의 울림—소해금

은 감동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졌다. 하여 나는 민족기악소조에 들기를 추다짐했다.

같은 소해금을 연주하는 언니들이 마주앉아 다정하게 손수룩이 활쓰기를 대주었고 소조지도원선생님이 기초훈련을 하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어느덧 약 한달동안 기초훈련은 물론 《아리랑》의 선율도 연주할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1년을 지내보니 우리 학교생활에도 익숙하고 소해금연주술도 부쩍 늘었다.

그러던 어느날 금강산가극단공연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학교에 다닐 때에도 가끔 금강산가극단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우리 학교에 편입하여 소해금을 배운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연이었으니 어서 가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의 날이 왔다. 그전에는 사회자가 우리 말로 공연종목을 소개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제 알아들을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척 기뻐했다.

공연종목들속에서 마음을 끈것은 소해금4중주였다.

연주가들이 봄꽃같은 연분홍색치마치고리틀 산뜻하게 차려입고 연주하는 소해금소리를 듣는 순간은 무덤에 전류가 흐르는것같았다. 너무도 아름다운, 여태껏 들은적이 없는 신비롭고 은은한 울림이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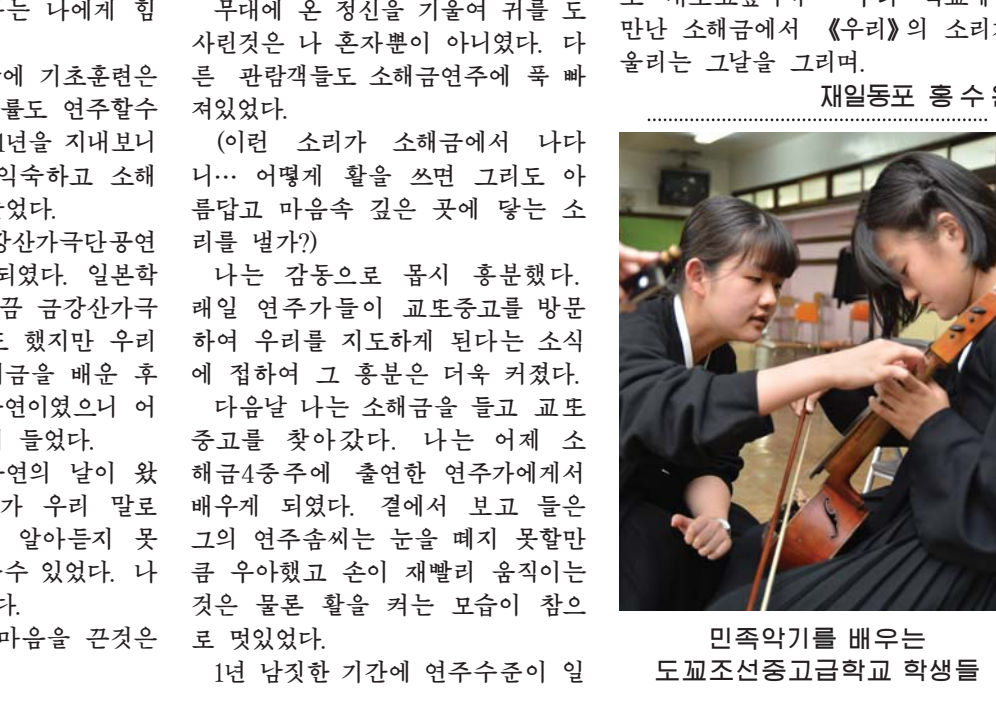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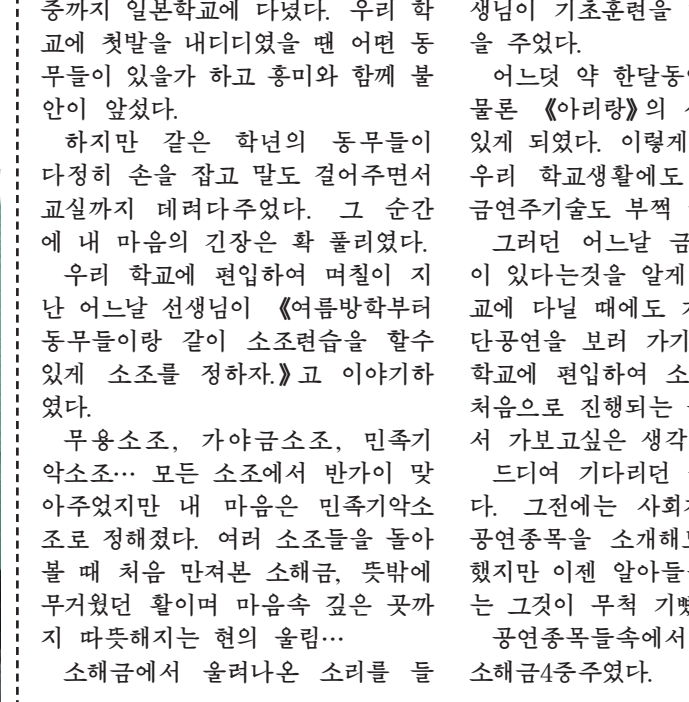
무대에 온 정신을 기울여 귀를 도사린것은 나 혼자뿐이 아니었다. 다른 관람객들도 소해금연주에 푹 빠져있었다.

(이런 소리가 소해금에서 나온다... 어떻게 활을 쓰면 그리도 아름답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소리를 낼까?)

나는 감동으로 몸서 흥분했다. 래일 연주가들이 교포종교를 방문하여 우리를 지도하게 된다는 소식이 접하여 그 흥분은 더욱 커졌다.

다음날 나는 소해금을 들고 교포종교를 찾아가었다. 나는 어찌 소해금4중주에 출연한 연주가에게서 배우게 되었다. 곁에서 보고 들은 그의 연주습치는 눈을 떼지 못할만큼 우아했고 손이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물론 활을 켜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연수준이 일



민족악기를 배우는 도교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



# 전쟁부나비들의 미련한 불장난

남조선호전광들이 윤석열의 《대통령》취임과 때를 같이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연이어 벌여놓고있다.

공개된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호전광들은 미해군과 조선동해수역에서 연합반잠수함합색훈련이라는것을 벌였다.

그 무슨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벌여놓은 이 전쟁불장난에는 미국과 남조선의 이지스 구축함과 비행대, 구축함 등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9일부터 두주일간 미국과의 대규모적인 연합공중훈련이라는것도 감행하였다.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이라는 명칭을 달고 벌인 이 훈련에는 남조선공군과 남조선강제 미공군 그리고 주일미군사령부의 각종 전투기 90여대가 동원되어 전쟁불장난을

일삼았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윤석열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함께 연이어 북침전쟁불장난을 벌이고있는것은 윤석열보수 《정권》의 호전적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었으로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파자 《정권》때보다 더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대결장동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이미전에 남조선이 자기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었다. 또한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대결책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대결을 삼가할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외세와 함께 동족을 겨냥한 전쟁불장난을 하느라 땅, 바다에서 그칠 사익이 없지 않다고 벌이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과 군부것들의 머리속에 오직 동족에 대한 적의와 동족과 힘으로 대결하겠다는 야망만이 짙들어차있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마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방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기도밑에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같은데 참으로 어리석다 하지 않을수 없다. 객은 닭알도 청바위를 깨뜨리는것과 같은 우둔하고 미련한 짓거리에 실로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모든 도전을 선제적으로 제압분쇄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필승불패의 강국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끔찍한 말로써 퍼려져든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불장난을 당장 걸어치우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발을 떴지만 《여소야대》와 극심한 내부 갈등, 최악의 민심불만 등 모면하기 힘든 극도의 심각한 통치위기에 시달리려 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힘에 눌려워 당선후 먼저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개편안》도 제안하지 못하였던것은 물론이고 실력과 능력을 떨쳐며 골라잡은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들의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면서 각계의 비난을 받고있다.

얼천태 덮친 격으로 윤석열의 처의 미신놀음에 쫓겨 《대통령》사무실과 판처를 옮기는 추태를 벌이고 사병들에 대한 월급인상,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한 복지공약들을 스스로 폐기하는 바람에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40%대밖에 안되는데다 당장 민심불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에 몰려있는것이다.

여기에 최고의 물가상승, 남북관계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반군핵의도와 최악의 조급과 다름없는 추악한 행태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



고 덕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것처럼 어리석은것은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당이 아무리 얼굴에 미소를 짓고 《5월정신》에 대해 떠들어대도 민심은 절대로 속일수 없으며 인민의 저주와 비참을 받고 력사의 무덤에 처할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류현철

《선비협화》를 통한 남북관계정상화와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떠들며 《한미동맹》강화, 《한미일공조》의 힘으로 동족과 대결하겠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윤석열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라는 민주개혁세력의 강한 압박까지 받게 되었다.

날로 복잡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을 무시한 친미일변도적인 대외정책추구로 하여 남조선에 들이닥치는 외교적풍랑과 정치, 경제, 군사적난과도 닮은 위기에 윤석열이 호를 침몰의 위기에 몰아가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대북 및 외교안보분야의 대단히 힘든 (포부)》는 가장 경험이 많고 인기있는 대통령들에게도 힘에 부치는 일로써 경험과 인기가 부족한 윤석열에게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되고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의 구조적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루적되

를 수정하며 로조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부동산정책과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석열이 《대통령》선거당시 내놓았던 핵심공약들을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하여 취임초기부터 새 《정부》에 대한 민심의 기대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데 대해,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해, 조분민심의 요구를 거의다 무시한대 대해 사죄하고 《무정운명》방향을 전면수정하라고 강하게 들어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겨레의 지향, 민심의 요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려질 것이란 비참한 과일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신놀음

남조선의 광주시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5월 18일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주목되는것은 이때까지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보수세당이 이번 행사에 대대적으로 참가한것이다.

윤석열을 위시하여 《대통령실》 참모들과 행정부의 장관들이 행사장에 물러들었고 《국민의힘》관계자들도 총출동하였다.

그리고는 행사과정에 광주렬사들의 유가족들과 손을 잡고 《남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다고 추파를 던지기도 하였는가 하면 《5월정신》에 대해 뇌가리었다. 참으로 개교리가 황모되었다고 해도 이보다 놀랍지는 않을것이다.

려대 보수 《정권》과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5.18광주인민봉기를 《폭도들의 반동》으로, 광주인민봉기회생자유가족들을 《피물집단》으로 매도하고 광주를 피바다에 잠근 국악무도한 살인

마 전두환역도를 《영웅》으로 치켜세웠으며 광주렬사들의 넋이 어린 《남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하여못해 잔치집에서 부르는 《방아타령》을 연주하게 하려고 비열하게 책동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자들이 이번엔 광주인민봉기를 기념하는 행사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여 《남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5월정신은 우리모두의것》이니, 《5월정신은 모두의 상징》이니 하고 떠벌이며 광주인민봉기의 정신을 이어 사회의 민주화실현에 적극 나설것처럼 늘어났으니 가히 여론의 주목을 받을만도 하다.

그러만 실지 광주인민봉기를 가장 악랄하게 헐뜯고 광주항쟁용사들을 모독하던 보수세당이 5.18의 지지자, 5월정신의 계승자, 민주의 옹호자로 변했는가 하는것이다. 아니다. 이번엔 윤석열패들을 비롯한 보수세당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가하여 《5월정신계승》에 대해 떠들며 동족을 부린것은 민주개혁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

로 여기고있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민심을 끌어당겨 《민주세력의 뿌리》를 흔들어놓는것과 함께 당면한 6월지방자치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정말 뻔뻔하기란 양몰의 밀구멍같은 음흉하기란 더 말할것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명백히 광주학살세력의 후예, 군사 《정권》의 후예로서 이들의 《5월정신계승》에는 진정성이 없다. 윤석열과 《정부》, 《국민의힘》의 이번 《기념식》참가자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수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헌법》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쫓아박는것을 보고 그 진정성을 평가하였다. 광주학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가 참가만 한다고 하여 보수들의 본성이 변한것이 아니다라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있는것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것처럼 그 무슨 《공정》과 《상식》을 떠들며 민심을 우롱하던 윤석열패들이 동족대결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윤석열패들은 저들이 집권기간 추진할 《국정과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평화의 쇼》, 《연극》으로 헐뜯으며 북남공동선언과 합의의 폐기를 주장하였는가 하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강렬한 군사적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한것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며 《대북제재유지》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의 철저한 리행을 주도하고 그 무슨 《북비협화》와 《북인권문제》를 북남관계정상화의 우선과제로 제기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세와 함께 《북핵포기우선론》을 내두고 북남공동선언과 합의들을 전면부정하면서 반공화국책동과 전쟁대결책동으로 6.15이후 종계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결판낸 리명박역도와 그뒤를 이어 국악무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북

남조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발을 떴지만 《여소야대》와 극심한 내부 갈등, 최악의 민심불만 등 모면하기 힘든 극도의 심각한 통치위기에 시달리려 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힘에 눌려워 당선후 먼저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개편안》도 제안하지 못하였던것은 물론이고 실력과 능력을 떨쳐며 골라잡은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들의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면서 각계의 비난을 받고있다.

얼천태 덮친 격으로 윤석열의 처의 미신놀음에 쫓겨 《대통령》사무실과 판처를 옮기는 추태를 벌이고 사병들에 대한 월급인상,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한 복지공약들을 스스로 폐기하는 바람에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40%대밖에 안되는데다 당장 민심불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에 몰려있는것이다.

여기에 최고의 물가상승, 남북관계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반군핵의도와 최악의 조급과 다름없는 추악한 행태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

최근 남조선내부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실》 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번엔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보좌진》을 친미사대분자, 동족대결분자로 규정하였다.

《대통령실》의 주요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 실장과 1차장 겸 《국가안보보좌진의》 사무처장자리에 《한미동맹우선론》을 주장하는 친미분자와 리명박집권시기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작성에 직접 참여한 자를 올려앉혀놓는가 하면 2차장과 그아래의 국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보수경향이 짙은 륜군사관학 교출신들을 들여앉힌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요직들에 자기의 심복들과 고향출신들을 끌어들이었다.

이전 집권자들은 검찰에 대한 민심의 거부감을 의식하여 검찰출신들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하

《대통령》선거기간 집권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던 당내의 《공신》들을 홀대하고있다. 《토사구팽을 당한 기분》이다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력기구를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데 따라 집권층의 성격과 정책방향을 관별할수 있다.

윤석열이 이른바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 민심에 역행하는 참모진구성 놀음

최근 남조선내부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실》 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번엔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보좌진》을 친미사대분자, 동족대결분자로 규정하였다.

《대통령실》의 주요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 실장과 1차장 겸 《국가안보보좌진의》 사무처장자리에 《한미동맹우선론》을 주장하는 친미분자와 리명박집권시기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작성에 직접 참여한 자를 올려앉혀놓는가 하면 2차장과 그아래의 국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보수경향이 짙은 륜군사관학 교출신들을 들여앉힌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요직들에 자기의 심복들과 고향출신들을 끌어들이었다.

이전 집권자들은 검찰에 대한 민심의 거부감을 의식하여 검찰출신들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하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황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책동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패들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부》시기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 《대북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수행에서 보수본색을 가

우리로 북남관계를 과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넣는 선행 독재자들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고 말을 한마디 해도 심사숙고하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패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처럼 동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 며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 국제문제

고 이런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시한다. 설명이 담겨져있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추악하고 저열한 본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대가 아닐수 없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에 설치되었다. 《평화의 소녀상》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연행하였

고 이런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시한다. 설명이 담겨져있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추악하고 저열한 본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대가 아닐수 없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에 설치되었다. 《평화의 소녀상》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연행하였

고 이런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시한다. 설명이 담겨져있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추악하고 저열한 본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대가 아닐수 없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에 설치되었다. 《평화의 소녀상》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연행하였

고 이런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시한다. 설명이 담겨져있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추악하고 저열한 본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대가 아닐수 없다.

도이쾰란트의 베를린에 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에 설치되었다. 《평화의 소녀상》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연행하였

남조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각계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통산에서 《한일관계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립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하는 동안 일본의 전수상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현 수상이 공물을 봉납했으며 베를

남조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각계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통산에서 《한일관계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립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하는 동안 일본의 전수상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현 수상이 공물을 봉납했으며 베를

남조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각계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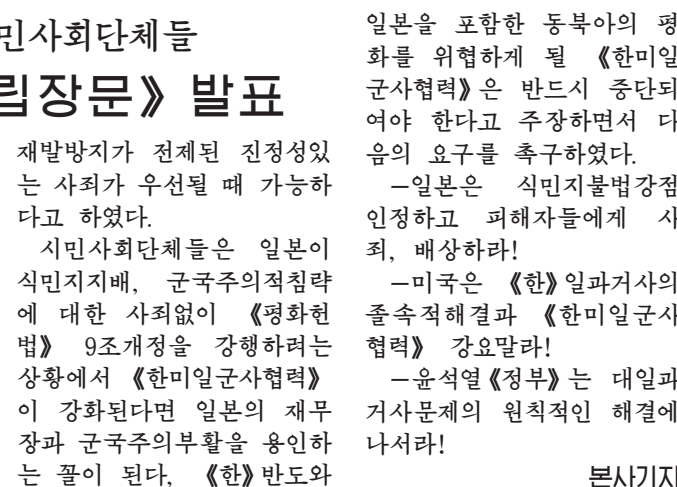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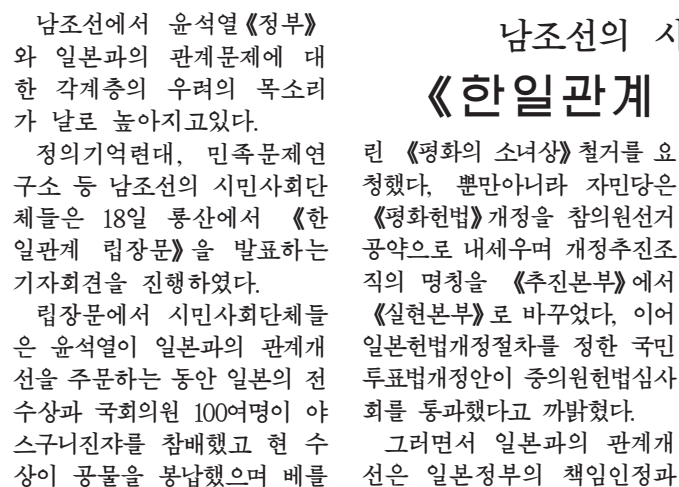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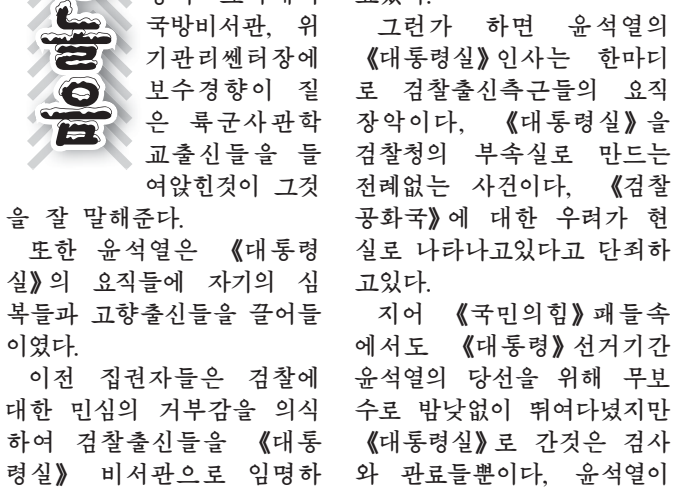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통산에서 《한일관계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립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하는 동안 일본의 전수상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현 수상이 공물을 봉납했으며 베를

남조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각계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통산에서 《한일관계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립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하는 동안 일본의 전수상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현 수상이 공물을 봉납했으며 베를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립경동굴유적



발굴전 동굴의 입구



발굴후 동굴의 내부



1 대표적 인 표본 화석들
사슴아래턱뼈, 늑대아래턱뼈, 복작노루아래턱뼈, 노루발뒤축뼈, 노루(미정종)뿔, 사슴(미정종)견갑골, 사슴아래턱뼈, 누렁이아래턱뼈, 큰쌍고릴비이빨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유적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강동군 립경로동자구에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을 새로 발굴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유적의 면모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이 과정에 구석기시대 문화층(2층)에서 인류(신인)화석 7점, 짐승뼈화석 9종에 300여점, 포분화석 274개를 발굴하였다.

전자상자성공명년대측정을 진행하여 이 유물들이 지금으로부터 2만 3 000±3 000년 전의것이라는것을 확증하였으며 인류화석(이발과 머리통뼈 조각)은 구석기시대후기에 산한개체의 30대의 녀성이라는것을 해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강동군 립경로동자구의 자연동굴에서 발굴된 화석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인류화석을 지명에 따라 《강동사람》으로 명명하였다.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심의와 내각결정에 따라 립경동굴유적은 보존유적으로 등록되었다.



머리통뼈 조각들, 인류화석들, 소나무속, 너도밤나무속, 팽나무속, 금송나무속, 국화과, 버드나무속, 느릅나무속, 느티나무속, 봉의꼬리속, 노가자나무속, 참나무속, 능쟁이과 (확대배율 800배)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녀자력기선수 최효심

기관차체육단 녀자력기선수 최효심은 지난 시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낸 유능한 선수이다. 어려서부터 양각도축경기장청소년체육학교에서 력기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기관차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기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끝어울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의 특기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공교화하기 위해 그는 평상시 훈련에서 맘을 많이 흘리었다. 높은 육체적능력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될 때에만 경기마다에서 우승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그는 감독의 지도 밑에 훈련에 열정을 다 바치었다.

그의 이악한 훈련기풍은 국제경기마다에서 훌륭한 성과를 안아오게 하였다. 2011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생취한 그는 2012년 아시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생취하였다.

그리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력기 녀자 63kg급경기에서 2위를,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력기 녀자 63kg급경기에서 은메달을 생취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자기의 실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그는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줄넘기

줄넘기는 빙빙 돌리거나 고정시켜놓은 줄을 어린이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뛰어넘으며 노는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해동죽지》에는 《옛 풍속에 어린이들이 줄의 양끝을 잡고 뛰어넘으며 노는데 천여번씩 한다. 어린이들의 놀이로서 다리힘과 기운을 키워준다. 그 명칭을 《줄넘기》라고 한다.》고 써여져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어린이들속에 줄넘기 놀이가 널리 보급되어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근대시기에 이르러 탄력 있는 고무줄이 리용되면서 종래의 줄을 돌리면서 놀던 놀이방법외에 줄을 고정시켜놓고 노는 새로운 놀이 방법이 창안되어 더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줄넘기는 혼자서 또는 여럿이 편을 나누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중에는 두손에 줄의 양끝을 쥐고 혼자 돌리면서 뛰어넘는 방법, 두명이 줄을 마주 쥐고 서서 크게 휘둘러는데 거기에 여러명이 뛰어들어 넘는 방법, 줄을 팽팽히 늘이고 높이 뛰기를 겨루는 방법 등이 있다.

줄넘기는 반드시 노래가 동반되어야 흥취도 있고 재미있게 진행된다. 줄넘기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다음 다진 과와 마늘, 생강, 고추가루를 두고 버무려 단지에 넣는다. 두릅을 데친 물은 발아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단지에 부어 김치를 익힌다.

본사기자

뼈질병치료에 효과적인 네디콜교감약

공화국의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개발한 네디콜교감약이 로년기, 중년기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골송소종과 같은 여러가지 뼈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효과적이것으로 하여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동진이팝나무

용진이팝나무는 용진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립석리소재지마을의 길옆에서 자라고있는 한그루의 나무이다. 1880년경에 심은 이 나무의 높이는 4.5m, 뿌리목둘레는 2.4m이며 나무갓직경은 13m이다. 나무는 뿌리목에서 밑대가 자라고 0.8m정도의 높이에서 8개의 원기자가 났으며 높이에 비해 너비가 거의 3배에 달하므로 넓은 우산모양을 이루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징벌의 검 (2)

글 립왕성, 그림 김운일

약착하고 검질긴 왜구떼

1419년 쓰시마섬정의 직접적동기는 이처럼 비인현 도둔문사건이라고 할수 있지만 맺히고 얽힌 역사는 꽤 오래다. 왜구가 우리 나라 바다에 대대적으로 침입해오기 시작한 경인년(1350년)으로부터만 꼽아도 70년의 역사를 거슬러올라가야 한다.

기어들었고 동해안으로는 북청, 리원앞바다에까지 나르났다.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됨에 따라 왜구는 늘어났고 바다가 고을들만 락탈하던 늑들이 수백척의 배를 끌고 수천수만명씩 들이닥쳐 내륙지방에까지 더러운 락탈의 손길을 뻗혔다.

당시 고려의 북방정세가 긴장하여 병력의 거의 전부가 서북과 동북지방에 나가있는 틈을 노린 교활한 늑들은 남쪽으로 기어올라 백성들의 재물을 락탈하고 바다가의 조세운반선들을 털어갔다.

그리하여 해안지대의 기름진 농경지가 목어나고 농민들이 재고장을 뜨는 비참한상태가 빚어졌다. 고려인민들은 가중스러운 왜구침입을 막기 위한

수많은 병선이 무어졌고 바다가와 섬인들로 수군이 편성되었다. 최무선의 제의로 화통도갑이 설치되고 화약무기가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다. 1380년 우수한 화포를 실은 100여척의 병선으로 편성된 고려함대는 금강하구인진포에 침입한 500여척의 해적선에 복속의 불벼락을 안겨 모조리 불살랐다.

그리고 살아남아 료지에 오른 늑들은 전라도 운봉에서 완전히 섬멸하였다. 그후 제해권을 틀어쥔 고려수군과 인민들은 1383년 박두양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구를 무찔렀다. 1389년 2월 100여척으로 구성된 고려함대는 박위의 지휘밑에 왜구의 소굴인 시마를 공격하여 300척의 배와 해안시설을 모조리 불사르고 불합격했던 고려사람 100여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본사기자

두릅김치

어있어 건강에 좋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릅 300g일 때 다진 마늘 5g, 소금 10g, 붉은불무우 100g, 고추가루 5g, 다진 과 20g, 다진 생강 5g을 준비한다.

두릅은 삶는물에 살짝 데쳐내고 붉은 불무우는 큼직큼직하게 썬다.

속담과 뜻

◆ 빈달구지 소리만 요란하다.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떠들기는 더 한다는것을 비유어 이르는 말.

◆ 노루꼬리가 길면 얼마나 길까. 노루꼬리는 원래 짧으니까 기껏 길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길겠는가 하는 뜻으로 재주나 아는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가 함을 반문투로 비겨 이르는 말.

◆ 혀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 없는자가 있는체하고 모르는자가 아는체함을 비겨 이르는 말.

본사기자